



글 김규나

임유이그림

### 성장소설 최초의 당신

#### 〈103〉 어긋난 사랑의 시작

“선배는 왜 안 보여, 요?” 하운이 물었다.  
“누구?” 동우가 물었다.  
“그때 옆에 있던 선배.” 하운이 말했다.  
“아, 현성이?” 동우는 실망한 것 같았다.  
“우리 동아리 아닌데.”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오르긴 하운도 마찬가지였다.  
“현성은 중학교 친구야. 그때 너한테 말 거는 게 서먹해서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동우가 눈치를 슬쩍 보았다.  
“현성인 잠자 화장이야?”  
동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뭐라구?”  
신입생들이 앞으로 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순서였다. 소란해서 잘 들리지 않았다.  
“문학 동아리.”  
동우가 말했다.  
“잠자? 카프카?” 하운이 물었다.  
“응, 현성이는 시를 써.” 동우가 우물거

림자가 드러났다. 하운은 그것이 현성의 그림자라는 것을 금세 알았다.  
“안녕하세요. 1학년 신입생 정하운입니다.” 현성 앞으로 뛰어간 하운이 반듯한 발음으로 인사했다. 현성이 걸음을 멈추었다.  
“가입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운이 복도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마디도 입을 뿜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회원 모집 끝났어.” 현성이 낮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운이 말했다.  
“근데 뭐?”  
“그래도 꼭 가입하고 싶습니다.” 현성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으로 물었다.  
“리더십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었나?”  
현성은 학생 식당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안하기도 했지만 하운은 오히려 희망의 동아리라고도 불잡은 것 같았다. 조금 더 용기를 내 보기로 했다.



리며 말했다.  
“소설인가?”  
확신하지 못하겠는지 어깨 한쪽을 올렸 다 내렸다.  
“빨리 나가 봐. 사회자가 너 나오라잖아.” 동우가 하운을 다그쳤다.  
하운은 가방을 챙겨 들고 별떡 일어섰다.  
“어디 가?” 동우가 하운의 팔을 잡았다.  
“배가 심하게 아파. 생리통인가 봐, 요.” 하운이 물어뜯을 것처럼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동우가 얼굴이 빨개져서 잡았던 팔을 놓아 주었다. 하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아리방을 뛰어났다.  
다음 날 하운은 문학 서랍함이 있는 복도를 서성거렸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을 따라 먼지들이 뽀얗게 떠다녔다. 하운이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고 있던 하얀 운동화 위로 킁 킁

“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리방으로 들어가려다 현성이 하운을 돌아봤다.  
“그럼 써,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운이 멍하고 현성을 쳐다보았다.  
“네.” 하고 대답했다. 현성이 다시 등을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차례였다.  
“근데 신춘문에. 그거, 해 보고 싶어요.” 하운이 손잡이를 붙잡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재빨리 막아섰다.  
왜 그런 말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운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현성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운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혼자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무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과 문우들께 비평도 받고,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무주산골영화제 '작지만 큰 축제'

## 덕유산 청정 숲서 5~9일 영화 힐링... 21개국 96편 상영 '매드맥스' 조지 밀러 감독 신작 '3000년 기다림'에 관심 집중

매해 6월이 되면 반딧불이의 고장 전라북도 무주에서 전국을 들었다 놔다 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5~9일 진행되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펼쳐지는 큰 축제로 덕유산 청정 숲에서 국내외 최신 영화와 독립 예술 영화고전 영화를 두루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작은 영화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영화 특유의 웅장한 사운드와 영상미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개국 96편이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영화 중 하나는 첫날인 5일 '무주반디관'에서 오후 1시에 상영되는 '3000년의 기다림'(2022:15세 관람가)이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 7년 만에 나온 조지 밀러 감독의 신작으로 영국 의 비평가이자 부커상 수상 작가 A. S.

바이엇의 단편소설 '나이팅게일 눈 속의 정령'을 원작으로 한다.  
20여 년에 걸친 치밀한 구상에 감독의 딸 어거스타 고어와의 각본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3000년 전 사랑한 여인 때문에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업보를 갖게 된 정령과 그리스어로 '진실'을 뜻하는 이름의 서사학자 알리테 아(틸다 스윈튼)의 여정이 이어진다.  
역사를 글로 아는 서사학자와 그 시간을 직접 관통한 지나의 이야기 대결이자 3000년이라는 광활한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리브스토틀다. '천일야화'와 '알라딘'을 뒤섞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영화.  
또한 같은 날 무주반디관에서 오후 3시30분에 상영되는 '행복한 라짜로'(2018:12세 관람가)도 큰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악명 높은 후작 부인의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순박한 청년 라짜로의



5일 '무주반디관'에서 오후 1시에 상영되는 조지 밀러 감독의 '3000년의 기다림'.



5일 오후 3시30분에 상영되는 '행복한 라짜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어느 날 후작 부인의 아들 탄크레디는 요양을 위해 농장 저택에 온다. 라짜로

와 탄크레디는 친구가 되고 이들은 후작 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가짜 납치 계획을 세운다. 이 소동으로 담배 농장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데...  
2018년 칸국제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으로 그해 세계 곳곳의 평단이 꼽은 '올해의 영화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 화제작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탈리아의 여성 감독 알리체 로르바케르리는 지난해 '키메라'(2023)로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바 있다.  
무주산골문화재단은 평론가·감독·기자·시인 등 7명의 필진이 참여한 소책자 '현실과 환상의 시네아스트: 알리체의 로르바케르'(2024)를 통해 알리체 영화를 알리는 중이다.  
한편 전북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자연 친화적인 축제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화용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 조계종 '禪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 내 맘 편해야 남의 마음도 살피게 돼 국회의원 대상 1~2개월마다 명상 지도



5월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현재 개발 중인 선 명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마음을 스스로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내가 힘들면 자비도 사랑도 요원하다. 내 마음이 편해야 남의 마음도 편하게 해 줄 여유가 생긴다.  
최근 조계종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중에게 선(禪) 명상을 보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31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 일원에서 국내 기자들을 상대로 명상 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걷기 명상' 지도를 진행한 흥대선원 준환스님은 "걷기 명상 따로 있고 소리 명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명상이다. 선 명상은 '지금이 내 삶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려오는 소리와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살 전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걷기 명상에서 기자들은 발걸음을 느긋하게 옮기며 물소리·새소리·발자국 소리에

집중했다. 명상의 효과로는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억제되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진관사 혜주스님은 인간이 본래 지닌 사랑과 친절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비 명상'을 소개했다. 이 명상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은 뒤 타인의 친절했던 경험을 회상하는 게 핵심이다.  
혜주스님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던 순간이나 따뜻함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도록 목소리로 인도한다. 그런 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내 마음에 보내도록 참가자들을 독려한다. 또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한다. 자비 명상은 내가 편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극간인심' 원리에 바탕을 둔다.  
한편 금강스님은 화두에 집중하는 '간화선 명상' 체험을 지도했다. 화두에 집중한다는 것은 '싫다' '좋다'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의미다. 예를 들어 타인이 나의 친절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말한다. 나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미움도 객관화가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현재 개발 중인 선 명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마음을 스스로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국회의원 중 불교 신자 혹은 명상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서 1~2개월에 한 번씩 직접 명상을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계종은 내달부터 8차례에 걸쳐 명상 지도자를 교육하고 9월28일 국제선 명상대회 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

모든 아이들에게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는 인성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WE START **후원문의 1577-9572**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